

# 쟁점마다 격론... 봉은사 직영사찰로

## 조계종 제183회 임시종회... 동대 이사후보 추천·부원장제 부결

조계종 중앙종회 제183회 임시종회가 3월 8-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16개 안건이 상정됐던 종회는 동대 이사후보 추천건으로 봉도사·월정사 스님들이 회의장을 방문하고, 집행부가 총무분과위원에서 반려된 봉은사·선분사건과 총무원 부원장제 등 집행부 핵심 추진안을 긴급 상정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쟁점 시간마다 격론이 오가며 회기 동안 제과간 흰겨투기를 거듭했던 종회는 법정 스님 원적으로 폐회됐다.

개회식에서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신임 직능대표 세영·보광·오심·정산 스님과 제13교구 쌍계사 이암 스님, 제14교구 범어사 무관 스님, 제19교구 화엄사 우석 스님이 의원 선서를 하고 분과 배정을 받았다.

배정된 분과는 교육분과-세영 스님, 사회분과-이암·오심 스님, 법제분과-보광·무관 스님, 총무분과-정산·우석 스님이다.

###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 부동의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은 개회 전부터 종단의 이목이 집중됐다. 봉도사와 월정

사는 "문중이 배제된 계파 중심의 선출"이라고 비판하며 추천된 이사후보 스님들의 사퇴와 종회차원의 반력을 촉구했다.

두 사중스님들은 종회 첫날부터 회의장을 방문했다. 봉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월정사 주지 정남 스님은 8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면담하고 사중의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동국대 이사 후보·감사 후보자 추천 동의 건이 상정되자 격론이 벌어졌다.

안건상정이 되기 전에 월정사 종회의원 도안 스님은 "동대 설립의 최대 출원 사찰인 월정사가 이사를 계속해왔다. 이번 추천안은 파행적"이라며 이사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

봉도사 종회의원 오심 스님도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출원사찰을 배려한 불문율이나 관습법이 무시됐다"며 전체의원 의사 타진을 제안했다.

반면에 무애 스님은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반려 사유는 안 된다. 비밀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무기명 비밀투표 진행이 결정된 후에도 후보 단일 투표와 후보별 개별 투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

됐다.

결국 안건은 개별 투표로 진행돼 종관위에서 추천된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안이 모두 부결됐다. 봉도사 영배 스님 후임 이사후보 추천건(정호·범해 스님)은 출석의원 75명 중 찬성 37표, 반대 38표로 부결됐다. 월정사 정남 스님 후임 이사후보 추천건(종호·선각 스님)도 찬성 27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상운 스님 후임으로 진화·대전 스님이, 진만 스님 후임으로 진만·영관 스님이 추천된 동국대 감사 후보 추천건과 승가학원 이사 후보 추천 동의건은 종회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성문·원혜 스님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1일 긴급간담회를 소집하고 종회가 종관위 결의를 무시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 #총무원 부원장제 신설건 부결

총무원 부원장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종헌 및 총무원법 등은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반려된 것을 종회의원 찬성 27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11일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의원 60명 중 찬성 25표, 반대 35표로 부결됐다.

###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9일,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종회 총무분과회의에서 반려됐던 직영사찰 지정·해지 등 재조정 안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입장 속에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하는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출석의원 70명 중 찬성 45표 반대 21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선분사를 직영사찰에서 해지하고 특별분담사찰로 전환하는 안은 69명이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58표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사찰부동산관리법은 수정 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종회는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으로 상정된 근일(고운사), 종진(해인사), 월탄(법주사), 암도(백양사), 성파(통도사), 정관(범어사) 스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중앙종회의원 종호·원경·장명·현조 스님을 선출했다.

한편, 본회의는 2009년도 중앙종무기금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억1400만원, 특별회계 7억6000만원이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 2만 사부대중 동참 영산재 성료

## 태고종,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2010영산재(사진)'가 성대히 봉행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3월 11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2010영산재'를 개최했다. 현대화·대중화된 영산재를 시연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봉행된 행사에는 2만여 불자가 경기장 안팎을 가득 메우며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행사인 영산재 관련

영상물 방영 등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영산재 시연,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법회 순으로 봉행됐다. 이날 공연은 108명의 어산단에 의해 시연됐다. 시연 시간도 전통 영산재의 절반인 1시간 40분 단축돼 공연의 짜임새를 더하고, 대중의 지루함을 덜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봉행사에서 "11월 11일 개최될 G-20 정상회의는 국가적인 대행사이다. 2010영

산재는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염원을 모아 기원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주가 나와 한 뿌리요, 일체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가슴 깊이 새겨 국가의 어려움과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 조계종 183회 임시종회 권력 균형 저울질... 계파 간 힘겨루기 확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어느 한 계파로 권력의 무게가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공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도 경계했다. 계파간 연대 속에 제3대 집행부를 출범시킨 안정과 화합을 해치는 것은 더욱더 반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83회 임시회는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 동의 건,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지정 승인의 건과 선분사 특별분담사찰 전환 지정 동의 건, 총무원 부원장제 신설 등이 쟁점사안이었다.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 동의 건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후보 선출 직후부터 논란이 뜨거웠다.

격론 끝에 투표를 거쳐 쟁점사안 중 첫 상정된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

동의 건이 부결됐다. 이를 두고 계파에서는 공의를 수렴 않는 독단의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와 계파간 공조의 금기가 시 작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면에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스님들은 중심으로 "중앙종회가 일정 부분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는 그 역할을 중앙종회 스스로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의 건에서 특정 계파의 후보추천이 저지되자, 그 여파는 바로 총무원 부원장제 신설로 미쳤다. 종회의원스님들은 총무원 부원장제 신설 역시 부결시켰다.

동국대 이사후보 동의안 부결에

서 특정 계파가 저지된 것을 볼 때, 종회의원스님들이 총무원 부원장제를 현 총무원장제의 권력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해 갈등의 소지를 막고자 부결시킨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과 선분사 특별분담사찰 전환 건을 두고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의원스님들은 총무원이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해 강남·북 포교 벨트를 구축하고 총무원 재정 건전화를 꾀하겠다는 주장은 수용했지만, 일각에서 특정분사와 연관된 선분사의 특별분담사찰 전환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종회는 공의 수렴을 중시하

고, 종단 내 조성된 안정과 화합 기조 유지를 위한 종회의원스님들의 의지가 뚜렷했음을 보였다.

반면에 법정 스님 원적으로 따라 조 기 폐회했다고는 해도, 주경 스님 등이 발의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제23교구분사 관음사 관련 소송 및 채무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삼보장재 수호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안건들은 소홀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제지리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는 종회에서 배포한 '대한불교진흥원 관련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조계종은 진흥원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 상반기 10억 목표로 나눔 정진 아름다운동행,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 2010년 '저소득·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자금 조성활동을 전개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 상반기 사업을 발표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 '저소득·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사업에 이어 올 상반기(2-6월)에 '저소득·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사업을 펼친다. 사업은 상반기 10억 모금 목표와 '희망의 등 달기 운동'을 위한 1배 100원 모금

△자비나눔 모금 방송 △한끼 나누기 운동 △자비연꽃 배지 달기 운동을 펼친다. 본격적인 사업은 부처님오신날을 정점으로 실시된다. '희망의 등 달기 운동'은 부처님오신날 공양(齋)과 함께 5000원을 기부하게 된다. 지난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1배-100원, 108배 모금법회'는 4월 14일 초하루법회 때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108배를 통한 개인 수행활동과 함께 이웃을 위한 보시행하는 모금법회는 올해도 많은 불자와 관계자

들의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자비나눔 모금방송'은 봉축행사가 열리는 5월 9일 2시 장충체육관 어울림마당 행사에서 모금방송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모금방송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원, 불자사업인, 정치인, 불자연예인 등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1000원 기부 문화 정착인 '자비연꽃 배지 달기 운동', 3-5월 한끼 식사비용인 5000원 보시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 '저소득·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사업을 통해 11억원의 기금을 모금했다. 지난해부터는 KBS현장르브 '동행' 출연자 지원 사업으로 나눔 실천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 국제전수금강보살계대법회

## 國際傳授金剛菩薩戒大法會

세계고승  
한국에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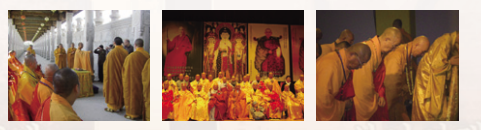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오는 6월18일 대교교단에서 국제전수금강보살계를 봉행하고자 세계불교승가회 세계고승들을 초빙하여 재가불자들에게 금강보살계를 전제함으로써 보리심을 증상시키고 한국불교를 널리 신앙 불법흥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대교교단 봉행 위원회 -

국제전수금강보살계단사리존증사단  
國際傳授金剛菩薩戒壇阿闍梨尊證師團

- |  |  |  |
|--|--|--|
| <p><b>名譽說戒師:</b> 悟明大長老(永久名譽世界僧伽會會長)<br/>오명대장로(영구명예세계승가회회장)</p> <p>淨心大長老(世界華僧會會長)<br/>정심대장로(세계화승회회장)</p> <p>覺光大長老(香港佛教聯合會會長)<br/>각광대장로(홍콩불교연합회회장)</p> <p>說戒師: 道成大禪師(前海印寺住持)<br/>도성대선사(전해인사주지)</p> <p>萬翁大禪師(前海印寺住持)<br/>만옹대선사(전해인사주지)</p> <p>得戒阿闍梨: 淨良長老(中華民國佛教會會長)<br/>정량장로(중화민국불교회회장)</p> <p>羯磨阿闍梨: 覺醒大禪師(中國佛教副會長)<br/>석각성대선사(중국불교부회장)</p> | <p><b>教授阿闍梨:</b> 慧雄大禪師(世界佛教僧伽會秘書長)<br/>혜웅대선사(세계불교승가회비서장)</p> <p>授經阿闍梨: 妙淨大法師(臺灣佛教會會長)<br/>묘정대법사(호주불교회회장)</p> <p>依止阿闍梨: 明光大法師(台北佛教會會長)<br/>명광대법사(대북불교회회장)</p> <p>開堂和尚: 寂默大和尚(大覺教團事務總長)<br/>개당 和尚: 慧峰大和尚(地藏禪宗宗正)</p> <p>尊證師: 能戒大和尚(慈福寺方丈)<br/>능계대화상(오대선사복지사방장)</p> <p>慧禪大和尚(留雲禪寺方丈)<br/>혜선대화상(유운선사방장)</p> <p>大願大和尚(六祖寺方丈)<br/>대원대화상(육조사방장)</p> | <p>惠謙大和尚(圓光佛學院副院長)<br/>혜겸대화상(원광불학원부원장)</p> <p>長工大和尚(仁禪寺方丈)<br/>장공대화상(인선사방장)</p> <p>世澄大和尚(大平岩寺方丈)<br/>세정대화상(태평암사방장)</p> <p>宏正大和尚(法印寺方丈)<br/>홍정대화상(법인사방장)</p> <p>廣正大和尚(법인사방장)<br/>광정대화상(법인사방장)</p> <p>프리마하대승(미하츄리문대學副總長)<br/>미다파대승(미하피리벤나사원학장)</p> <p>보페까마테로대승(오다나리아사원)<br/>프라스디나비데스대승(외타이달마사원)</p> <p>解超大和尚(少林宗總務院長)<br/>그외 다수 국내외 고승대덕</p> <p>*당일 1시부터 축하공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p> |
|--|--|--|

3월 1일부터 ~ 4월 30일까지 신청마감!!

- 특별수계자는 외국고승들께서 가사, 장삼을 수여합니다.
- 수계 받은 불자들은 불계율연원 법을 드립니다.
- 각 종단 및 각 사찰별로 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 4월 15일까지 신청마감!!

佛戒淵源(불계유원)에 법호를 기재하오니  
尊證師(존증사) 또는 引禮師父(인례사부) 하실  
대덕큰스님들은 신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日時: 應化世尊3037年  
南傳涅槃 2554年 6月 18日(農曆5月7日) 午後 1時

場所: 大邱市 호텔인터불고 엑스코國際宴會場

後援: 世界佛教僧伽會(臺灣 本部)

協贊: 佛教TV放送, 現代佛教新聞

同參佛子: 若 五千名(약 5,000명)

大覺教團 國際傳授金剛菩薩戒奉行委員會  
大覺教團 總裁 泰和 釋迦山大禪師  
奉行委員長 開堂和尚/寂默 能仁和南

702-849,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1122, 4F 大乘寺  
사무처: 053)325-5288/325-0400 팩스: 053)325-4848  
휴대폰: 010-3900-3050/010-6306-0082